

- 주요 뉴스: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, 사상 최고치 예상. 통화정책 영향에도 관심
 -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, 상대적으로 질서 있는 경기둔화를 기대
 - 영국 재무장관, 단기 금융시장 움직임보다 장기 경제성장에 집중
 - BofA, 투자심리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.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 우려 증폭
 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예상보다 강력한 통화긴축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4.7%], 달러화 강세[+3.1%], 금리 상승[+24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3개월래 최저
 유로 Stoxx600 지수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4.4% 하락하며 '20년 12월 이후 최저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'02년 5월 이후 최고 수준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3.3%, 0.3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예상 등으로 상승세 지속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'13년 9월 이후 최고치
- 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5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9/23일	9/16일	전주말대비			9/23일	9/16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3,693.2	3,873.3	-4.65%	국채 금리 10y	미국	3.68%	3.45%	24bp
	유럽	390.40	408.24	-4.37%		독일	2.02%	1.76%	27bp
	중국	3,088.4	3,126.4	-1.22%	CDS 5y	한국	50bp	33bp	17bp
	일본	27,154	27,568	-1.50%		중국	104bp	75bp	29bp
	한국	2,290.0	2,382.8	-3.89%	위험 지표	EMBI+	447	433	14bp
	달러지수	113.19	109.76	3.12%		VIX	29.92	26.30	13.76%
환율	유로화	0.9687	1.0016	-3.28%		WTI유	78.74	85.11	-7.48%
	엔화	143.31	142.92	-0.27%	원자재	구리	337.2	356.1	-5.32%
	위안화	7.1283	6.9870	-1.98%		금	1,643.9	1,675.1	-1.86%
	원화	1,409.3	1,388.0	-1.5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(23일 휴장을 감안하여 22일 지수 반영), 한국 KOSPI,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, 사상 최고치 예상. 통화정책 영향에도 관심

- 9/30일(금)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가 공개. 시장에서는 연간 상승률이 9.6~9.7%를 나타내 전월(9.1%) 대비 올라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.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를 것으로 추정(5.5%→5.6%)
- 최근 원유, 철강, 목재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, 이는 지속적인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상쇄.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 증가 영향으로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
- 아울러 독일의 물가안정 대책 종료 역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. 독일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맞아 950억유로 규모의 지출 확대를 통해 전기료 제동 장치를 도입하고 난방지원금 등 각종 특별 혜택을 제공. 또한 저가의 대중교통 사용 티켓도 발매
- 그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이 ECB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한다면, ECB가 10/27일 통화정책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. 또한 이번 주 ECB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예정
- 이 외에 금주 다수의 ECB 인사들이 공개 발언에 나설 계획인데, 이들이 일관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정책을 강조했음을 기억할 필요. ECB 슈나벨 이사의 경우 경기악화 가능성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, 상대적으로 질서 있는 경기둔화를 기대

- 보스틱 총재는 강한 노동시장이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. 다만 일정 수준의 일자리 감소를 피하기는 어려우며, 이에 경기 연착륙 가능성도 점차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

■ 미국 재무장관, 실업률의 큰 폭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 둔화세 유지 예상

- 옐런 장관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략을 유지한다고 해도 실업률이 5%까지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발언. 또한 최근의 노동시장은 미국 역사상 수요 우위의 여건이 가장 강한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

■ 미국 백악관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의 병합 진행 시 추가 제재 부과

-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힘의 논리에 의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병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. 장-피에르 대변인 역시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추가적인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

■ 영국 재무장관, 단기 금융시장 움직임보다 장기 경제성장에 집중

- 콰텡 장관은 영국을 좋은 투자처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. 한편 최근 단행한 감세안은 모든 소득 계층을 공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며, 위기에 맞서 다소 완화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설명

■ 중국과 인도, 라우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. 러시아는 군사작전 지속 의지 강조

-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. 인도 외무장관 역시 평화의 편에 설 것이라고 언급. 반면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비난하고, 동남부 지역이 주민투표로 러시아에 병합되면 이들은 완전하게 러시아의 보호 아래 놓일 것이라고 발언

■ BofA, 투자심리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.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 우려 증폭

-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강세/약세 지수가 극한의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지적. 또한 주식 및 채권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, S&P500 지수는 3,300~3,500 수준(9/23일 기준 3,693)에 이를 것으로 전망
- 한편 골드만삭스 역시 연말 S&P500 지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(4,300→3,600). 연방기금금리가 내년 2월 4.50~4.75%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, 이는 기업이익 감소를 초래하여 S&P500 지수는 3,15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2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S&P Global 종합 PMI: 49.3, 8월(44.6), 예상치(44.7)
- 유로존 9월 S&P Global 종합 PMI: 48.2, 8월(48.9), 예상치(48.2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2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보스턴 연은 로젠그렌 총재·ECB 라가르드 총재·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회견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통화 당국, 고물가 통제 과정에서 정치적 환경도 중요 - Financial Times

(Central bankers fighting inflation need good political fortune as well as skill)

- 1970년대는 재정 적자 확대 및 규제 강화 등이 추진되어 인플레이션 통제에 불리. 반면 198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 재임 당시 기간 동안 레이건 대통령은 규제 완화, 생산성 강화를 강조. 또한 세계화의 태동 등 고물가 통제에 국내·외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고, 당국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
- 현재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감세, 규제 완화 등은 기대난. 이에 더해 탈세계화 움직임 및 미국의 수요 우위 노동시장으로 임금·물가 동시 상승 위험이 증대
- 현 상황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. 다만 주식 투자자의 경우 인플레이션 통제가 불리한 정치·여건에서 증시의 주가수익비율(PER)이 17로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의를 요구

■ 아시아 주요국 통화 약세, 역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- 블룸버그

(Financial Crisis Redux Looms in Asia as Major Currencies Crack)

- 최근 일본 및 중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차이가 부각되면서 엔화와 위안화 약세가 심화. 엔화와 MSCI 신흥국 통화지수의 상관관계수가 0.9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, 이는 아시아 전역에서 자본유출과 통화약세를 초래할 소지
- 이에 일부에서는 엔화 및 위안화 약세가 심화될수록 아시아 금융위기 수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. 특히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은 이러한 여건에서 외부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모습을 나타낼 소지. 다만 과거와 달리 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점 등은 긍정적

■ 외환시장 개입 사례, 국가 간 통화정책 공조 부재 시 더욱 증가할 전망 - WSJ

(The Fed, the Dollar, the Yen and You)

-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치솟은 달러화 가치는 점점 더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.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으나, 기업들은 해외 수익 감소, 주요 무역 파트너의 인플레이션 악화 등의 부작용도 증가
-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 간 통화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. 파월 의장은 주요국 간 높은 금리차로 국제공조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지난 주 일본(BOJ)과 같은 외환시장 개입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

■ 채권투자자, 고금리 투자 및 경기 연착륙 전망에 베팅 - Financial Times

(Fed tightening: debt investors bet on high yields and a soft landing)

- 미국 10년물 금리가 3% 후반대로 '11년 이래 최고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부 채권투자자들은 수익률이 5~7%에 달하는 투자등급채부터 신용위험이 높은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융에 이르기까지 고금리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
- 채권투자자들은 미국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경제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준이 경기침체를 피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기 연착륙 (soft landing) 시나리오를 기대 중
- 그러나 최근 글로벌 회사채 디폴트 규모(S&P, 2/4분기 \$300억)가 전기 대비 세배 급증 하는 등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고 주요 IT기업이 인력을 감축하는 등 경기하방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

■ 미국의 전략비축유 급감, 에너지 안보 우려 증대를 유발 - WSJ

(Biden's America is Running on Empty)

- 미국의 전략비축유 재고는 바이든 정부 들어 화석연료 규제, 전략비축유 방출 증가 등으로 빠르게 감소하여 1984년 이후 최저 수준
- 바이든 정부는 최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략비축유 방출 기한을 11월초까지 연장. 원유수급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화석연료 규제 기조도 지속될 경우 에너지 안보 관련 위기 인식이 늘어날 전망

■ 주요국 중앙은행, 인플레이션 예측 어려움 등으로 과도한 긴축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The inflation fight: are central banks going too far, too fast?)

■ 각국 중앙은행, 통화정책 공조를 통한 경기침체 회피가 요구 - WSJ

(Central Banks May Stoke Risks by Raising Interest Rates Together)

■ 미국 경제, 달러화 강세는 자본유출 방지 등 국익에 기여 - 블룸버그

(The Strong Dollar Is About to Pay Some Dividends)

■ 유럽의 안정성장 협약 개정 검토, 공공자출 및 부채감축 관련 효과 기대 - Financial Times

(Urgent rewriting of EU fiscal rule book will depend on trus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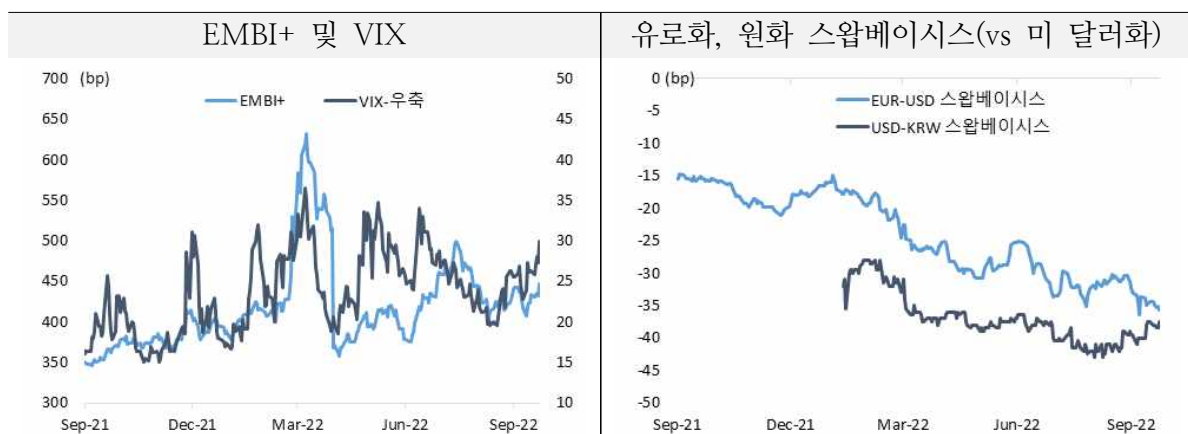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